

1년 넘게 스톱, J프로젝트

정부부처 협의 지연 심의조차 못해...주민-전남도 부지 마찰도

전남도의 최대 역점사업인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가 개발계획승인 신청 과정에서 정부부처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승인 신청 1년이 다 되도록 개발계획 심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향후 일정도 불투명,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3면)

J프로젝트는 특히 사업대상 부지인 해남지역 간척지를 둘러싸고 지역민과 전남도 간 마찰이 빚어지고,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로 일부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이 겹치는 전북 새만금이 급부상하는 등 을 들어 약재가 겹쳐 사업속도 우려마저 일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J

프로젝트 6개 사업지구 가운데 삼호와 구성, 초송 등 3개 지구에 대해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을 심의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발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J프로젝트 사업의 타당성과 간척지 활용 및 양도·양수방안 등에 관해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올해 안 개발계획 승인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사업대상 부지인 해남군 산이면 일대 대규모 간척지의 활용방

안을 놓고 현지 주민들이 개발보다는 농지로 임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농림부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J프로젝트의 큰 틀이 흔들리고 있다.

또 J프로젝트에 참여키로 한 5개 SPC(전담법인) 가운데 일부가 최근의 어려운 경제 및 자금사정을 이유로 투자를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사업내용이 크게 중복되는 전북 새만금 개발사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삼아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점 등도 J프로젝트의 입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J프로젝트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투자자까지 결정된 '진행

▲J프로젝트=오는 2025년까지 해남군 산이·황산면, 영암군 삼호면 일원 87.92km(2천 660만 평)에 사업비 3조3천여 원을 투입, F1경주장과 호텔, 골프장, 마리나,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행' 사업인 만큼 작은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수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내면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수능일 응원 같게요” “선배들 힘 내세요.”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1일, 동신여고 1·2학년들이 수능 당일 오전 시험장 앞에서 사용할 응원 도구를 제작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살농사 풍년 가격도 올라

전남을 생산량 전국 최고

올 들어 전남지역 쌀 생산량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벼농사가 풍년을 맞았지만, 과잉생산으로 값이 하락하고 있는 다른 농산물과는 달리 값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쌀 생산량은 484만3천톤으로, 지난해 440만8천톤보다 43만5천톤(9.9%)이 증가했다.

이 같은 생산량은 500만톤이 생산됐던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올해 쌀 재배면적이 지난해의 95만250ha에 비해 1.5%가 감소한 93만5천766ha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풍이 든 셈이다.

전남도의 올해 쌀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10.4%가 증가한 90만1천302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재배면적은 지난해 19만3천64ha에서 올해 18만9천231ha로 2.0%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쌀값(전국 산지 평균 가격)은 지난 5일 현재 80kg당 16만1천712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3%가 올랐다.

산지 비 역시 40kg당 평균 5만2천753원으로 1년 전보다 10.9%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2009 대입 논술 무료 설명회
조성식 선생 초빙·20일 광주 KT빌딩 대강당

다들 바빠서 못가던 2009 대입 논술고사에 대해 속 시원한 대답을 드립니다.
생주일보사는 생주대성학원과 공동으로 서울초암 논술아카데미 조성식 입시컨설팅장을 초빙, 대입논술 무료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입논술지도의 최강자로 불리는 조성식 선생은 주요대학 논술고사의 최선경험과 대미요령, 고득점 달인적 실범을 조목조목 짚어드릴 것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일시 : 11월 20일(토) 오후 2시
- 장소 : 광주 KT빌딩 3층 대강당(동구형 입)
- 강사 : 조성식 서울 초암논술아카데미 팀장
- 대상 : 수험생·학부모·각 고교 진학실장·논술교사
- 문의 : 광주대성학원(www.kjdaesung.com) ☎062-227-00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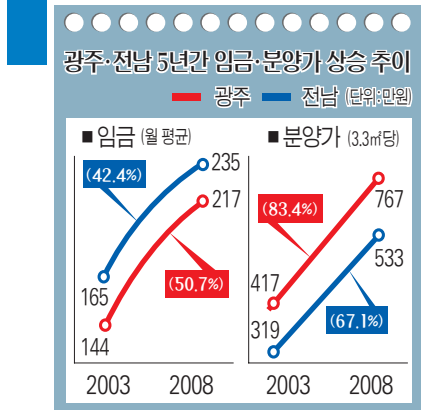
2009 정시 논술 전략자료집·가채원 배치 기출표 무료배부

光州日報社·광주대성학원·초암논술아카데미

무등중1회 홈커밍데이

- 일시 : 2008.11.15(토) 오후 3시
- 장소 : 모교교정
- 행사
 - 1부 : 교정에서 친구들과 손잡기 외
 - 2부 : 스승님들과 만남(오후 6시 백운동 프라도호텔)

이러 동창 벗님을 함께 합니다.
무등중 1회 동창회 cafe.daum.net/mudeung1 (연락:임성래 016-731-0061)



월급 217만원 근로자가 100㎡ 아파트 내집 마련 하려면

월급 한 푼 안쓰고 모아도 광주서 8년10개월 걸린다

광주에서 임금 근로자가 100㎡(30평형)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월급을 모두 저축해도 최소 8년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저임금과 고분양가 기조로 인해 최근 5년 새 새 집 구매에 걸리는 시간이 1년7개월이나 길어지는 등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11일 노동부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올해 광주 아파트(100㎡ 기준)의 평균 분양가는 2억3천1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4월 말 현재 광주의 상용 근로자가 받는 평균 임금(217만원)의 106배 수준이다. 이들 근로자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꼬박 8년10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또 월급 전액을 금리 6.6%의 정기예금에 넣어도 이 집을 마련하는 데 이자소득세 677만6천원을 포함해 최소 88개월(7년4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광주는 최근 5년 새 근로자들의 주택구매 기간이 20% 이상 길어질 만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2003년 광주 100㎡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억2천51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를 당시 광주 근로자의 평균 임금(144만원)으로 계산하면 주택 구입까지 87개월(7년3개월)이 걸렸다. 올해 주택구매를 위한 기간이 10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새집을 분양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년 새 19개월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광주의 주택 구매 기간이

길어진 것은 지역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폭이 주택건설업체의 고분양가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광주 100㎡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1억8천만원)보다 27.8%(5천10만원)나 뛰었다. 반면 근로자의 임금은 1년 전(193만원)에 비해 12.4%(24만원) 오르는 데 그쳐 분양가 상승폭과의 격차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전남도 비슷하다. 올해 전남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34만원으로, 100㎡당 평균 분양가(1억5천990만원)의 68분의 1 수준이다.

근로자의 월급을 꼬박 저축했을 때 새집 구매까지 5년8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이를 금리 6.6%의 정기예금에

부여도 소득세 133만4천원을 포함해 65개월(5년5개월)이 소요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중고생 겨울방학 학습특강!!!
개강: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강사진

호남한샘학원
교육상담: (061) 332-1111
호재미리: http://www.hosamschool.com

YB운도현밴드
광주콘서트

2008. 11. 29 SAT 7:30PM, 30 SUN 5:00PM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6
티켓판매: 티켓마루, 티켓뱅크, 옥션티켓